

研究論文

신라‘西化’구법승과 그 사회

권 덕 영*

-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서화 구법승의 두 부류 | <참고문헌> |
| III. 서화 구법승의 재당 활동 | <국문요약> |
| IV. 서화를 부추긴 신라사회 | |

I. 머리말

영국의 역사학자 네이미어(Lewis B. Namier)는 어떤 사회나 단체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을 ‘굽은 발톱을 가진 새’에 비유하였다. 그런데 신라 불교사에서 굽은 발톱을 가진 새는 바로 중국이나 인도에 건너가 선진불교를 공부한 구법승들이었다. 일반적으로 西學 求法僧이라 불리는 그들은 신라 불교 발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더불어 신라 불교계를 선도해나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신라의 서학 구법승은 시종 신라 불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라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수용된 이후 많은 승려들이 중국과 인도에 유학하였다. 진흥왕대 초 覺德으로부터 시작된 서학구법은 진평왕대 圓光 이후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安弘·圓測·慈藏·義相 등으로 이어졌다. 一然은 그러한 서학구법의 실태를 ‘繼踵踵踵’이라는 말로 표현했거니와,1) 앞 사람의 발꿈치를 좇아 부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 한국고대사 전공(dykwon@pufs.ac.kr).

1) 『三國遺事』 권4, 圓光西學.

산하게 왕래하던 신라의 서학구법 행렬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름이 확인되는 승려는 170여명에 불과하다.²⁾ 이는 전체 구법승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터인데, 그들은 대부분 고국 신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부는 신라에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최치원은 그들을 ‘西化’ 구법승이라 하였다.

최치원은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銘」에서 중국에 유학한 신라 승려들을 ‘西化’한 사람과 ‘東歸’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누었다. 서화자는 구법승 가운데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서쪽 당나라에서 죽은 승려로서 정중사의 無相과 常山の 慧覺이 있고, 동귀자는 유학 후에 동쪽 신라로 돌아온 승려인데 北山の 道義와 南岳의 洪陟 등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³⁾ 여기서 최치원이 말한 ‘西化’의 西는 신라의 서쪽 곧 중국 당나라를 의미하지만, 西를 광의로 해석하면 중국은 물론 인도까지를 포함한 신라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 혹은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서화 구법승’은 신라의 서쪽인 중국이나 인도에 유학하였다가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서 죽은 승려들에 대한 총칭의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신라 서학 구법승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에 한국불교연구원에서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구법승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⁴⁾ 그럼에도 종래의 연구는 주로 신라로 돌아온 이른바 東歸 구법승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간혹 서화 구법승을 다룬 연구가 없지 않으나, 그것들마저 특정 승려 개개인의 행적과 사상을 개략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친 감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서화 구법승의 전체적인 규모와 활동 그리고 서화의 정치·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소홀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신라 서화 구법승을 인도 곧 天竺 巡禮僧과 在唐 승려로 나누어 그들의 존재를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재당생활을 중심으로 서화 구법승들의 여러 활동을 살펴보고, 왜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이국에서

2) 黃有福·陳景富, 『中朝佛教文化交流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436~475쪽, 김병근, 「新羅 下代 求法僧들의 行蹟과 實狀」, 『佛敎研究』, 24(한국불교연구원, 2006), 133~143쪽.

3) “西化則靜衆無相 常山慧覺 禪譜益州金鎮州金者是 東歸則前所敘北山義 南岳陟 而降大安國師 慧日育 智力聞 雙溪照 新興彦 涌岩體 珍丘休 雙峰雲 孤山日 兩朝國師聖住染 菩提宗.”

4) 서학 구법승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본문 서술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인용, 소개하였다.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신라의 사회적 특성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선학 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바란다.

II. 서화 구법승의 두 부류

1. 天竺 巡禮僧

당나라의 고승 義淨이 찬술한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는 8세기 이전에 서역을 순례한 60여명의 승려가 입전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신라 승려 7명의 전기가 들어 있어 이채롭다. 일찍이 一然是 『삼국유사』에서, 서역을 순례한 신라 구법승들의 행적을 간추려 소개한 후 “얼마나 많은 이가 저 달을 따라 외로운 배로 떠나갔던가? 그러나 구름 따라 돌아온 이는 볼 수 없어라”라고 노래했듯이,⁵⁾ 그들은 대부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소개된 신라 승려로서 우선 들 수 있는 사람은 阿離耶跋摩이다. 그의 입당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아리아발마는 당 태종(627~649) 때 장안을 떠나 인도에 가서 정법을 추구하고 불교의 聖跡을 순례하였다. 그는 당시 인도 불교교학의 중심이었던 나란타사에 머물며 불교의 律과 論을 익히고 여러 불경을 간추려 베꼈다.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절에서 70세의 나이로 죽었다.

慧業 역시 아리아발마와 비슷한 시기에 천축으로 갔다. 당 태종 때 인도로 가서 菩提寺에 머물며 성스러운 불교 유적을 순례하고 나란타사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듣고 불서를 읽었다. 특히 그는 나란타사에서 無着的의 『攝大乘論』과 世親의 『攝大乘論釋』을 양나라 眞諦가 한역한 이른바 『梁論』과 범본 경론들을 필사하였다. 의정이 그 절을 찾아갔을 때 혜업은 이미 죽고 없었으나, 그가 베껴 만든 한역 『양론』과 범어 필사본들이 나란타사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⁶⁾

5) “幾回月送孤帆去 未見雲隨一杖還”(『三國遺事』 권4, 歸竺諸師).

6) 『大唐西域求法高僧傳』(王邦維 校注, 中華書局, 1988) 卷上, 慧業法師. 이하 본고에서 인용한 『大唐西域求法高僧傳』 기사는 王邦維가 校注한 중화서국 刊本에 의거하였다.

玄格도 당 태종 때 서역으로 간 신라 구법승이다. 당나라 太州 출신의 승려 玄照는 두 차례에 걸쳐 서역을 여행하였다. 첫 번째는 정관 10년(636)경에 난주를 출발하여 천축 여러 나라를 순례한 후 인덕 연간(664~665)에 당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는 665년에 낙양을 출발하여 천축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상원 연간(674~675)에 菴摩羅跋國의 信者寺에서 60여세의 나이로 죽었다.⁷⁾ 현각은 바로 현조의 1차 서역 구법행에 동행하였다. 그는 현조 일행과 함께 타클라마칸 사막과 총령을 넘어 闍蘭陀國을 거쳐 莫訶菩提 곧 大覺寺에 이르렀다. 현각은 거기서 불사리를 친견하고 좌불 화상을 참배함으로써 禮敬의 소원을 풀었으나, 병에 걸려 40세의 나이에 죽고 말았다.

현각은 대각사에서 죽었으나 현조는 나란타사와 信者寺에 머물며 수행한 후 당으로 돌아갔다. 당으로 귀환한 현조는 낙양에서 여러 승려들과 불법을 논하고 자신이 가지고 온 범본 불경을 한역할 예정이었으나, 당 고종이 羯濕彌羅國에 가서 長年波羅門 곧 로카야타(盧迦溢多)의 方士를 찾아오라는 명을 내려 어쩔 수 없이 다시 천축으로 가게 되었다. 이때 현조의 시자로 따라간 사람이 신라승 慧輪이다.

혜륜은 현조 일행과 함께 縛渴羅國, 迦畢試國, 信度國을 거쳐 羅茶國에 도착해 왕의 존경과 예우를 받으며 4년 동안 머물다가 부다가야로 가서 금강좌를 참배하고 菴摩羅跋國의 신자사에 도착해 머물렀다. 당으로의 귀국을 모색하던 현조가 이 절에서 죽자, 혜륜은 10년 동안 신자사에 살다가 동쪽의 觀貨羅 승려들이 사는 절인 建陀羅山茶로 옮겨가 거주했다. 의정이 귀국길에 오르던 685년경에 혜륜은 여전히 이 절에 살았는데, 당시 나이는 40세에 가까웠다. 그는 범어를 잘 했고 俱舍論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의정이 당으로 귀국한 후 혜륜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가 시종한 현조가 죽은 후 일행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혜륜이 般若跋摩라는 梵名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그는 당 혹은 신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입적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라 승려 두 사람이 장안을 출발하여 남해를 통해 배를 타고 婆魯師國에 갔다가 모두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⁸⁾ 그리고 신라승

7)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卷上, 玄照法師.

8) “復有新羅僧二人 莫知其諱 發自長安 遠之南海 泛舶至室利佛逝國 西婆魯師國 遇疾俱亡”(『大唐西域求法高僧傳』 卷上).

悟眞은 건중 2년(781)에 惠日과 함께 장안의 청룡사 惠(慧)果 아래에서 밀교를 공부한 후 정원 5년(789)에 중천축국으로 가 『大毘盧遮那經』 등의 범경을 구해 당으로 돌아오던 중 토번에서 죽었다.⁹⁾

의정이 “씩이 터 핀 꽃송이 열이라 많다 하지만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듯 하네”라 하고, “떠나간 이 반백이 넘지만 돌아온 이 몇몇인가”라고 한탄했듯이,¹⁰⁾ 천축 구법승의 생환 확률은 극히 낮았다. 앞에서 소개한 신라의 천축 순례승들이 그러한 사실을 웅변해 준다. 그럼에도 간혹 인도 구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 신라 승려도 있었다. 玄太和 慧超가 바로 그들이다.

현태는 두 번에 걸쳐 인도를 여행하였다. 영휘(650~655) 연간에 그는 티베트와 네팔을 경유해 부다가야의 보리수를 예배하고 불교의 경론을 자세히 살핀 후 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土峪渾에서 인도로 가는 道希法師을 만났다. 이에 그는 다시 발길을 인도로 돌렸다. 그의 두 번째 인도행은 도희법사의 길 안내자로 참여한 듯하므로,¹¹⁾ 도희가 신자사에서 죽을 때까지 부다가야, 구시국, 암마라발국 등지의 성적을 함께 순례하고 여러 律藏과 聲明學을 공부했을 것이다. 그 뒤 언제인가 당으로 돌아왔다.

혜초 역시 천축을 두루 여행하고 무사히 귀환하였다. 그의 천축 구법행로는 불완전하게나마 남아있는 『往五天竺國傳』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8세기 초반 당에서 남쪽 바닷길을 이용하여 동인도 연안에 상륙한 후 육로로 인도 전역을 여행한 다음 개원 15년(727)에 당나라 안서도호부가 있던 龜茲國를 거쳐 장안으로 돌아왔다. 『왕오천축국전』 전체 3권 가운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결락되어 출발부터 중천축 拘尸那國까지의 여정과 구자국에서 장안까지의 행로는 알 수 없으나, 잔본에는 중천축을 비롯하여 남천축, 서천축, 북천축 그리고 페르시아 지방까지 여행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현대와 혜초는 천축 순례를 마치고 무사히 생환했으나, 신라로 귀국하지 않고 당에서 입적한 것으로 보인다. 一然是 “다시 신라나 당나라에 돌아온 이가

9) “同年新羅僧悟眞 授胎藏毘盧遮那及諸尊持念教法等 至貞元五年 往於中天竺國 大毘盧遮那經梵夾餘經 吐蕃國身故”(『大唐青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 『大正新修大藏經』 권50, 295쪽 中).

10) “苗秀盈十而蓋多 結實平一而全少…去者數盈半百 留者僅有幾人”(『大唐西域求法高僧傳』 序).

11) 金相鉉, 『7世紀의 新羅西域求法高僧傳』, 『東國史學』, 35·36 合집(2001), 25쪽.

없었는데, 현대법사만이 당나라에 돌아왔다. 그러나 역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 하였고, 覺訓은 “후에 (현태가) 중국으로 돌아와 법의 교화를 널리 퍼니 숨은 공적이 이에 드러났다”고 했다.¹²⁾ 물론 여기서 현태가 중국에서 죽었음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문맥의 낱안으로 보아 일연과 각훈 모두 현태가 인도에서 돌아와 중국에서 교화를 퍼다가 그곳에서 죽었던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한편 혜초는 인도에서 돌아온 때로부터 50년 이상 당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신라로 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¹³⁾

2. 在唐 求法僧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의 천축 구법승들은 십중팔구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 반면 중국에서 구법한 신라승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신라로 돌아온 승려가 있는 반면, 일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귀국하기도 했다. 전자를 自發的 귀국승이라 한다면 후자는 타의에 의한 強制的 귀국승이라 할 수 있다.

자의에 의하여 귀국한 승려들의 진정한 귀국 동기가 무엇이었던, 표면상으로는 자신이 체득한 지식을 고국에 전하기 위함이었다. 智明은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배움에 이미 진수를 얻었으므로 法燈을 전하려는 마음이 간절해 귀국하였고,¹⁴⁾ 적인선사 惠徹은 불법을 고국에 선양하려는 마음이 깊어져 신기루 같은 파도를 가로질러 신라로 돌아왔다고 한다.¹⁵⁾ 보조선사 體澄, 진감선사 慧昭, 원량선사 大通, 낭공대사 行寂, 대경대사 麗嚴, 법경대사 玄暉, 통진대사 慶甫 등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義相 같은 이는 당의 신라 침입 사실을 본국에 미리 알리기 위해 귀국하였다. 이외 많은 신라 승려들 역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고국에 돌아왔을 것이다.

이와 달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귀국한 승려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12) 『三國遺事』 권4, 歸竺諸師; 『海東高僧傳』 권2, 玄太

13) 高栢翎, 『東아시아文化史論考』(서울대출판부, 1997), 28-29쪽; 정수일, 「혜초의 서역기행과 왕오천축국전」, 『한국문화연구』, 27(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4), 33쪽.

14) 『海東高僧傳』 권2, 智明.

15) 崔贊, 「大安寺寂忍禪師照輪清淨塔碑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37쪽.

당 무종이 會昌(841~846) 연간에 단행한 廢佛 외중에서 강제로 추방된 승려들이다. 회창 폐불은 '三武一宗'이라 불리는 중국의 4대 불교탄압 사건 가운데 가장 대규모적이고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당에 체류하던 외국 승려들은 모두 환속, 추방되었다. 신라 승려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 시기에 많은 구법승들이 당에서 쫓겨 신라로 돌아왔다. 낭혜화상 無染, 통효대사 梵日, 쌍봉화상 道允, 慈忍禪師 등이 그들이다.¹⁶⁾

자의든 타의든 중국에서 구법을 마치고 돌아온 승려들은 대개 신라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중에는 왕공귀족과 일반 백성들의 환대와 존경을 받으며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왕의 스승'이 된 승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당시 서학 구법은 자신의 신앙이랄까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경을 아울러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귀국을 마다하고 중국에 남아 생을 마친 一群의 승려도 있었다. 圓測, 神昉, 地藏, 無漏, 無相, 慧覺, 道育, 靈照 등이 그들이다.

우선 원측은 627년에 입당하여 주로 낙양과 장안 일대에서 유식학을 공부하고 역경사업에 참여하다가 696년 7월에 낙양 佛授記寺에서 84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이에 그를 용문 香山寺 북쪽 골짜기에서 화장하고 白塔을 세웠다. 그러나 장안 서명사의 제자들이 스승을 경모할 대상이 없음을 아쉽게 여겨, 서명사 주지 慈善과 천복사의 신라승 勝莊 등이 향산에서 유골 얼마를 가져와 원측이 생전에 오가던 중남산 豐德寺 동쪽 고개 위에 묘를 만들고 탑을 세워 사리 49과를 안치하였다. 그후 1115년에 용흥사 인왕원의 廣越法師가 흥교사 현장의 탑 왼쪽에 새로 원측의 탑을 세우고 풍덕사의 사리를 모두 옮겨 그곳에 봉안하였다.¹⁷⁾

玄奘의 제자로서 당의 각종 역경사업에 참여했던 신방 역시 당에서 죽었다. 사실 신방의 행적이 뚜렷하지 않아,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막연히 당에서 죽었을 것이라 추측해왔다. 그런데 송나라 陳思가 편찬한 『寶刻叢編』에, 당의 武三思가 證聖 원년(695) 5월에 찬술한 「唐慈恩寺神昉法師塔銘」이 『金石錄』에 전해

16) 權惠永, 「당 武宗의 廢佛과 신라 求法僧의 動向」, 『정신문화연구』, 제17권 제1호(1994), 87~107쪽.

17) 宋復, 「大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并序」;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下(寶蓮閣, 1972), 164~166쪽. 이하 본고에서 인용한 「大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并序」 기사는 李能和의 책(1972)에 의거하였다.

진다고 한다.¹⁸⁾ 그렇다면 장안에 신방의 부도탑이 있었던 셈이다. 후술하듯이 신방은 자은사에서 역경사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 따라서 무삼사가 말한 ‘慈恩寺神昉法師’는 신라 승려 신방입이 분명하고, 신방은 695년 이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당에서 죽었다고 하겠다.

지장은 池州 구화산 화성사에 머물며 오랫동안 수행, 교화하다가 784년 혹은 803년에 99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죽었다. 이에 화성사 南臺에 부도를 세우고 費冠卿이 탑비문을 적었다. 관련 전기에 의하면, 그의 시신은 3년 후까지 얼굴이 생시와 같았고 골절 움직임이 마치 금 사슬 흔들리는 듯 했다고 한다.¹⁹⁾ 지장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무루는 賀蘭 白草谷에 머물던 중 숙종의 초빙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 758년에 거기서 입적하였다. 이에 숙종은 무루의 영구를 舊居로 호송하고 탑과 塑像을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무상과 혜각은 최치원이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명」에서 서화 구법승으로 거론한 ‘靜衆無相’과 ‘常山慧覺’ 바로 그 사람이다. 무상은 728년에 입당하여 사천 정중사에 오래 주석하며 중생을 교화하다가 762년 그곳에서 입적하였다.²⁰⁾ 혜각도 최치원의 말처럼 당에서 죽은 것은 사실이나, 입적연대와 장소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최치원이 그를 鎭州의 金禪師이라고도 하였으므로 그는 주로 화북 진주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¹⁾ 그리고 도육은 892년부터 천태산에 들어가 卍田寺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938년에 80여세의 나이로 그곳 승당에서 입적하였다.²²⁾ 도육이 죽은 후 절의 승려들이 그의 시신을 불사르자 사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영조는 947년 龍華寺에서 78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大慈山에 그의 부도탑이 세워졌다.

18) “唐慈恩寺神昉法師塔銘 唐武三思撰 正書無姓名 證聖元年五月 金石錄”(『寶刻叢編』 권7, 陝西永興軍路 1 京兆府 上 長安縣).

19) 『宋高僧傳』 권20, 地藏傳; 費冠卿, 「九華山化城寺記」; 『全唐文』 권694(上海古籍出版社, 1990), 3159쪽.

20) 『宋高僧傳』(권19) 무상전에는 756년 5월 19일에 죽었다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역대법보기』에 따라 무상의 입적 연대를 762년으로 간주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鄭性本, 「淨衆無相禪師研究」, 『新羅禪宗의 研究』(민족사, 1995), 89쪽 참조.

21) 閔泳珪, 「圓仁入唐求法巡禮行記二則」, 『四川講壇』(又半, 1994), 87~89쪽에서, 적산 법화원의 선종 승려 惠覺을 상산의 慧覺과 동일인으로 간주하였다.

22) 『宋高僧傳』 권23, 道育傳.

이 외에도 많은 신라 구법승들이 귀국하지 않고 당에서 생을 마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적산 법화원의 신라 승려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법화원은 장보고가 창건한 사찰로, 일본 승려 圓仁이 이 절에 머물던 841년 당시 법화원에는 24명의 신라 승려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창 폐불 와중에서 이 절은 훼손되고 또 그곳의 승려들은 강제로 환속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이에 법화원의 승려 중 일부는 고국으로 돌아왔겠으나, 일부는 당에 그대로 남았다. 법화원 승려 信惠가 회창 폐불 기간동안 환속하여 이 절의 장전을 관리하며 당에 머물렀던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²³⁾ 그러나 847년에 무종이 죽고 宣宗이 즉위하여 불교 탄압정책을 폐기하자, 전국에 다시 절이 세워지고 환속한 승려들이 속속 사찰로 모여들었다. 신혜를 위시하여 귀국하지 않은 법화원 승려들 역시 다시 법복을 입고 각지의 절에 들어가 당에서 종신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圓安, 勝莊, 智仁, 玄超 등도 끝내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²⁴⁾

III. 서화 구법승의 재당 활동

1. 唯識僧 圓測과 神昉

원측이 당에 들어간 것은 그의 나이 15세 때인 627년이였다. 입당 후 그는 장안으로 가서 法常과 僧辯으로부터 攝論을 배웠다. 법상과 승변은 당시 攝大乘論에 정통한 고승이었는데, 그의 문하에는 당나라 승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승려들도 많았다. 승변이 弘福寺에서 강석을 열자 국내외의 승려들이 뒤섞여 만리를 멀다 않고 모여들었고,²⁵⁾ 법상으로부터 강설을 들은 사람은 수천 명이었는데 동쪽과 서쪽의 蕃國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

23) 권덕영, 「在唐 新羅人 社會와 赤山 法花院」, 『史學研究』, 62(한국사학회, 2001), 67~77쪽.

24) 呂聖九, 「新羅 中代의 入唐求法僧」,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191쪽; 김상현, 「7·8세기 海東求法僧들의 중국에서의 活動과 意義」, 『佛敎研究』, 23(한국불교연구원, 2005), 66쪽; 김상현, 「신라 法相宗의 성립과 順境」, 『新羅의 思想과 文化』(일지사, 1999), 305~307쪽; 천징푸, 「한국 승려의 長安에서의 활동」, 『佛敎研究』, 23(2005), 127~128쪽.

25) 『續高僧傳』 권15, 僧辯傳.

다.26) 원측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중국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원측이 법상과 승변 문하에서 섭론을 익히고 있을 즈음 玄奘도 이들의 강석에 참여하였다. 현장은 622년에 구족계를 받고 스승을 찾아 荊州, 相州, 趙州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장안에 들리 법상과 승변에게서 섭론을 강청하였다.27) 그때가 현장이 인도로 떠나기 직전이였다. 그렇다면 원측과 현장은 법상과 승변의 강석에서 서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28) 어쨌든 원측은 그후 당 조정으로부터 정식 출가를 승인받고 장안 元法寺에 머물며 毘曇·成實·俱舍·婆娑論 등을 열람하였다.

현장이 17년간의 인도 구법을 마치고 645년에 돌아오자 원측은 그로부터 유가론, 성유식론 등과 함께 이미 번역된 대소승경론의 받아 열람하였다. 그후 원측은 서명사 대덕이 되어 그곳에서 『成唯識論疏』 10권, 『解深密經疏』 10권, 『仁王經疏』 10권, 『金剛般若經疏』, 『觀所緣論疏』, 『般若心經疏』, 『無量義經疏』 등을 저술하였다. 원측이 서명사에서 저술에 몰두하던 그 시기에 이른바 현장법사의 신유식론 강의에 대한 도청사건이 일어났다.29) 이 사건의 전말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은 원측이 현장의 유식사상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강론, 저술함으로써 당나라 불교계에서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자은과로부터 질시와 배척을 받던 원측은 한때 서명사를 떠나 중남산 雲際寺와 거기서 약 30리 떨어진 절에서 8년 동안 조용히 살면서 뜻을 가다듬었다.30) 그러나 서명사 승려들이 돌아오기를 간청하였으므로 다시 서명사로 돌아가 성유식론을 강하였다. 마침 그 시기 중천축국의 승려 地婆訶羅가 장안에 들어와 고종의 명으

26) 『續高僧傳』 권15, 法常傳.

27) 『續高僧傳』 권4, 玄奘傳.

28) 『大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并序』에서, 현장이 인도에서 돌아와 원측과 만난 상황을 “及奘公一見 契合莫逆”이라 하였는데, 이는 일찍이 원측과 현장이 만난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 아닌가 한다.

29) 『宋高僧傳』(권4) 窺基傳에 의하면, 규기가 25세 되던 해에 원측의 도청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규기는 631년에 태어났으므로 그가 25세 되던 해는 656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략 650년대 후반에 일어났다고 하겠다.

30) 『大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并序』에 의하면, 옛날 원측이 오가며 머물던 중남산 豐德寺의 동쪽 고개 위에 그의 뼈를 따로 묻고 묘 위에 탑을 세웠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그가 서명사에서 물러나와 8년 동안 머물렀던 절은 중남산 운제사와 풍덕사였음을 추지할 수 있다.

로 역경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원측은 그 일에 참여하였다. 그때가 679년이였다.³¹⁾

원측은 지파가라가 역장을 개설할 때 번역에 참여했다는 ‘大德三五人’³²⁾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명사에서 『密嚴經』을 번역하였다. 지파가라의 번역사업은 측천무후 치세 중에도 계속되어, 수공(685~688) 말년에는 장안의 西太原寺와 廣福寺 그리고 낙양의 東太原寺에서 『大乘顯識經』과 『大乘五蘊論』 등 18부를 번역하였다. 이때 원측은 證義로서 번역에 참여하였다.³³⁾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원측은 佛陀波利가 가져온 『佛頂尊勝陀羅尼經』을 서명사 승려 順貞과 함께 번역하였다.³⁴⁾

원측은 측천무후로부터 대단한 존승을 받았다. 최치원의 「故翻經證義大德圓測和尚諱日文」에 의하면, 측천무후는 원측을 부처와 같이 존경했고 인도 승려들을 인견할 때마다 원측을 불러 그들과 토론하게 했는데, 그럴 때면 원측은 자료에 의거하여 유창하게 법문을 펼쳤다고 한다. 그리고 원측은 여섯 나라 말에 능통했고 신유식사상을 비롯한 불교에 두루 박통하였으므로 측천무후가 그를 부처처럼 존경했다고 한다.

원측은 菩提流志의 역경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즉 보리류지가 장수 2년(693) 장안에 이르러 불수기사에서 『寶雨經』을 번역할 때 원측은 神英 등과 함께 증의로 참여하였다.³⁵⁾ 당시 불수기사에서는 『보우경』 10권을 포함하여 『六字神呪經』, 『護命法門神呪經』 등 총 22권이 번역되었는데,³⁶⁾ 원측은 이들 번역에도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측은 말년에 實叉難陀가 주관한 『新華嚴經』 번역에도 참여하였다. 685년에 于闐國 사람 실차난타가 낙양의 大遍空寺와 佛授記寺에서 새로 화엄경을 번역하자 원측은 측천무후의 명을 받고 낙양으로 가서 義淨, 弘景, 神英, 法寶, 賢首 등과 함께 증의로서 그 일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신화엄경』 번역작업이

31) 『宋高僧傳』 권2, 日照傳.

32) 『宋高僧傳』 권2, 日照傳. 한편 「大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并序」에서는 “大德五人”이라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3) 『宋高僧傳』 권2, 日照傳.

34) 『貞元新定釋教目錄』 권12, 佛陀波利; 『大正新修大藏經』 권55, 865쪽 中.

35) 『開元釋教錄』 권9, 菩提流志; 『大正新修大藏經』 권55, 570쪽 上.

36) 南武熙, 「圓測의 生涯와 唯識思想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94쪽; 남무희, 「원측의 저술활동과 역경참여」, 『역사와 현실』, 54(한국역사연구회, 2004), 248쪽.

끝나기 전인 696년 7월에 불수기사에서 84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이처럼 원측은 유식학에 정통하고 만년에 당의 역경사업에 수차례 참여하였다.

신방도 유식학의 대가였고 당의 역경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라 황룡사 승려였던 신방이³⁷⁾ 언제 어떤 경로로 당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장이 弘福寺에서 역경작업을 시작한 645년 무렵 장안 法海寺에 머물고 있다가 證義로 뽑혀 역장에 들어갔다.³⁸⁾ 그후 신방은 줄곧 현장의 역경작업에 동참하였다. 특히 현장이 영희 원년(650)에 자은사 변경원에서 『本事經』 7권을 번역하고, 661년에 옥화사 팔주정에서 『緣起經』을 번역할 때 신방은 모두 筆受의 직무를 맡았다.³⁹⁾

현장으로부터 대승보살계를 받았다는 의미로 大乘叻이라 불리던 신방은 현장의 뛰어난 4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十輪經抄』와 『成唯識論記』를 비롯한 다수의 저술을 남긴 유식학승이었다.⁴⁰⁾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집권세력으로부터도 추앙을 받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證聖 원년(695) 5월에 武三思가 「唐慈恩寺神昉法師塔銘」을 찬술하였다. 증성 원년은 측천무후가 당을 대신해 周를 건국하고 자신이 황제가 된 5년 후인데, 당시 실권을 휘두르던 사람은 무후의 조카 무삼사였다. 무삼사는 무주혁명 직후 梁王에 봉해지고 정무를 총괄하는 天官尙書에 임명되었으며, 그가 신방의 탐비명을 지었던 695년에는 병무를 맡은 夏官尙書로서 감수국사를 겸하고 있었다.⁴¹⁾ 그러한 무삼사가 신방을 위해 탐비명을 지었다는 것은 당시 신방의 사회적 위치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2. 地藏과 密敎僧 無漏, 慧超

중국의 4대 불교성지 가운데 하나인 구화산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아 왔던 지장은 신라 왕족 출신이다. 지장에 관한 전기로는 『송고승전』(권20) 지장전과 費冠卿의 「九華山化城寺記」가 대표적이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그는 언제인가

37) 李萬, 「法相關係 論疏와 新羅人의 撰述書: 散逸本을 中心으로」, 『佛敎學報』, 27(1990), 181쪽; 李萬, 「新羅 神昉의 唯識思想」, 『韓國佛敎學』, 35(한국불교학회, 2003), 32쪽.

38) 『開元釋敎錄』 권8, 沙門釋玄奘;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권6; 『大正新修大藏經』 권50, 253쪽 下.

39) 『開元釋敎錄』 권8, 沙門釋玄奘; 『貞元新定釋敎目錄』 권11; 『大正新修大藏經』 권55, 856쪽 下.

40) 신방의 유식사상에 관해서는 李萬, 앞의 논문(2003), 35~49쪽 참조.

41) 『舊唐書』 권183, 열전 無三思; 『新唐書』 권206, 열전 無三思.

당에 들어가 각지를 순례하던 중 池州 구화산에 이르러 백토에 쌀을 섞어 먹으면서 고행하였다. 지덕(756~757) 초에 諸葛節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지장의 수행에 감화되어 재물을 희사해 옛날 僧檀이 살던 땅을 매입해 절을 지어 주었다. 그 후 건중(780~783) 초에 이 지방을 다스리던 張巖이 지장을 흠양하여 후하게 희사하였고, 또 조정에 추천하여 절의 편액을 받도록 해주었다. 이에 주위의 관리와 부호 그리고 백성들이 지장에게 귀의했다고 한다.

지장이 구화산에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사실이 신라에 알려지자 신라에서 많은 구법승들이 구화산을 찾아갔다. 비록 후대의 자료이지만 『九華山紀游』와 『靑陽縣志』에 따르면, 본국에서 사람을 보내 지장의 귀국을 중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장은 끝내 신라에 돌아가지 않고 794년에 구화산에서 99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그는 구화산에서 4부경 혹은 4대부경을 手持, 독송하였다. 그가 독송한 4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전인지 분명치 않으나, 법화경과 화엄경 관련 경전이 아닐까 한다.⁴²⁾ 또한 그는 지장신앙을 신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장은 구화산에 들어간 이후 줄곧 거기 머무르며 고행과 실천수행 그리고 중생교화에 힘을 쏟았다.

무루 역시 신라 왕족 출신이었다. 『송고승전』을 비롯한 그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신라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왕위에 뜻이 없어 일찍이 출가하여 당에 들어갔다고 한다.⁴³⁾ 입당 후 그는 인도를 순례할 마음으로 타클라마칸사막과 于闐을 지나 葱嶺까지 나아가 그곳의 큰 절에 이르렀으나, 절에서 만난 異僧의 권유로 인도행을 포기하고 당으로 되돌아 와 賀蘭의 白草谷에 머물며 寶勝佛을 청념하고 두 타행을 행하면서 수행에 정진하였다.

마침 그때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 장안을 함락하자 현종은 성도로 피신하고, 후에 숙종이 된 그의 아들 李亨은 靈武에서 진압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때 이형은

42) 呂聖九, 「入唐求法僧 地藏의 行迹과 思想」, 『白山學報』 52(백산학회, 1999), 470~474쪽. 한편 金煥泰, 「唐 九華山 新羅 地藏禪師 고찰」, 『韓國佛敎學』, 23(한국불교학회, 1997), 41쪽에서 지장이 독송한 4부경을 華嚴經, 寶積經, 般若經, 涅槃經이라 하였고, 黃有福·陳景富, 앞의 책(1993), 328쪽에서는 無量壽經, 觀無量壽經, 阿彌陀經, 鼓音磬陀羅尼經이라 하였다.

43) 鄭性本은 앞의 논문(1995, 85쪽)에서 無漏와 無相을 동일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贊寧이 『송고승전』에서 무상과 무루의 전기를 따로 설정하였고, 무루의 입적연대는 『佛祖歷代通載』에서 말하는 758년일 가능성이 많으며,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무상과 달리 무루는 靈武에서 현종의 아들인 李亨(肅宗)을 알현했다는 점에서 무루와 무상은 동일인일 수 없다.

불력으로 난을 진압하고자 100명의 승려를 행궁으로 초빙해 아침저녁으로 불경을 독송하도록 했는데, 무루도 거기에 참여하여 不空 등과 함께 기복을 청하였다. 그 후 당이 장안을 회복하고 환도하자 무루 역시 숙종을 따라 장안에 들어갔다. 무루는 궁궐 생활을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답답하게 여겨 옛날 자신이 살던 백초곡으로 돌아가기를 몇차례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받지 못하고 758년에 右閣門에서 죽고 말았다.⁴⁴⁾

무루의 신앙이랄까 사상경향에 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그런데 그는 늘 寶勝佛을 칭념하였고, 숙종의 행궁에서 不空과 교유했다는 점에서 그는 밀교계통의 승려였음을 추지할 수 있다. 특히 불공이 번역한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에 보승불이 妙色身佛, 廣博身佛, 離怖畏佛과 함께 아귀들에게 시식의 법을 念하는 施餓鬼會의 네 본존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⁴⁵⁾ 그런데 시아귀법은 보살행을 닦는데 보시를 제일로 삼는다. 따라서 무루가 수지하던 보승불 신앙은 보시를 특히 강조, 실천하는 불교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아마 보승불 신앙을 바탕으로 하란산이 있는 회원현 일대의 백성들을 교화하며 당에서 일생을 보냈을 것이다.

혜초 역시 밀교를 공부한 승려이다. 혜초의 숙연과 입당시기 등에 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인도 순례 후 당에서의 행적은 몇몇 단편적인 기록을 통하여 대강 유추할 수 있다. 인도 여행을 마치고 727년에 당의 안서대도호부가 있던 龜茲國을 거쳐 장안에 돌아온 혜초는 733년에 장안 薦福寺에서 金剛智로부터 大乘瑜伽金剛五頂五智千臂千手千鉢千佛釋迦曼殊室利菩薩秘密菩提三摩地法을 전수받고, 이후 8년 동안 금강지를 스승으로 모셨다. 혜초가 천복사에 머물고 있던 740년 5월에 금강지가 현종의 명으로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經』을 번역하였는데, 그때 금강지가 범어 원본을 口演하고 혜초가 그것을 筆受해 7개월 만에 작업을 마쳤다.⁴⁶⁾

741년에 금강지가 죽자 그는 금강지의 법통을 이은 不空의 문하에 들어가 교법을 전수받았다. 혜초가 대력 9년(774)에 대흥선사에서 불공에게 다시 일깨움을 받

44) 『송고승전』(권21) 무루전에는 上元 3년(762)에 입적했다고 하였으나, 『불조역대통제』에서 말하는 지덕 3년(758)이 옳다. 이 점에 관해서는 呂聖九, 「入唐求法僧 無漏의 生涯와 思想」, 『先史와 古代』, 10(한국고대학회, 1998), 170쪽 참조.

45) 呂聖九, 위의 논문(1998), 171~177쪽.

46)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序』; 『大正新修大藏經』 권20, 724쪽 中.

아 자신이 필수한 瑜伽心地秘密法門을 決擇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⁴⁷⁾ 뿐만 아니라 불공이 지은 「請於興善寺當院兩道場各置持誦僧制」에서 제자 21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흥선사 관정도량과 대성문수각에서의 念誦과 轉讀을 당부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거론된 사람이 혜초였다.⁴⁸⁾ 그리고 불공은 죽기 직전인 774년 5월 7일에 자신의 사후 법을 이을 證得 제자 6명에게 뒷일을 당부했는데, 그 속에 신라승 혜초가 포함되어 있다.⁴⁹⁾

그 무렵 혜초는 직명으로 蓋屋縣 玉女潭에서 기우제를 지내자 비가 흠족히 내렸으므로 그것을 陳賀하는 내용의 「賀玉女潭祈雨表」를 지어 대종에게 바쳤다.⁵⁰⁾ 이때 자신을 ‘內道場沙門惠超’이라 하였다. 여기서의 惠超가 慧超임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혜초는 내도량에 들어가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내도량은 궁중에 설치된 불교 도량으로 內寺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북위에서 기원하여 수 양제 때 확립된 이후 남송까지 이어졌다. 불공은 당의 내도량에서 주로 활동하였는데, 혜초 역시 불공의 입적을 전후한 시기에 내도량에 들어가 활동했다고 하겠다.

그로부터 6년 후인 건중 원년(780) 4월에 혜초는 오대산 乾元菩提寺로 들어갔다. 거기서 혜초는 자신이 필수한 한역본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을 그 절에서 구해 다시 필사하고 경전의 서문과 비의를 약술하고 서문을 지었다. 그것이 현존하는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序」이다. 그 후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건중 원년은 그가 인도에서 돌아온 이후 무려 53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였으므로 당시 나이가 상당히 연로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혜초는 오대산 건원보리사에서 입적하지 않았을까 한다.⁵¹⁾

47) “唐大曆九年十月 於大興善寺大師大廣智三藏和尚邊 更重諮啓 決擇大教瑜伽心地秘密法門”(『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序』; 『大正新修大藏經』 권20, 724쪽 中). 한편 金煥泰, 「新羅僧 慧超에 대하여」, 『伽山學報』 3(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19쪽에서 불공이 대력 9년 6월 15일에 입적하였으므로 혜초가 대력 9년 10월에 불공으로부터 일깨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대력 9년은 대력 元年의 잘못이 아닌가 하였다.

48)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 권4; 『大正新修大藏經』 권52, 845쪽 中.

49) “吾當代灌頂三十餘年 入壇授法弟子頗多 五部琢磨成立八箇 淪亡相次 唯有六人 其誰得之 則有金閣含光 新羅慧超 青龍慧果 崇福慧朗 保壽元皎 覺超 後學有疑 汝等開示 法燈不絕 以報吾恩”(『三藏和尚上遺書』,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 권3; 『大正新修大藏經』 권52, 844쪽 上~中).

50) 「賀玉女潭祈雨表」,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 권5; 『大正新修大藏經』 권52, 855쪽 上.

51) 정수일, 앞의 논문(2004), 33쪽.

이처럼 혜초는 당에 밀교를 전한 금강지와 그것을 이어 중국에 밀교를 정착시킨 불공을 모두 스승으로 모시고 밀교의 정수를 공부하였다. 불공이 말했듯이, 혜초는 오랫동안 秘藏을 탐구했고 眞乘을 깊이 깨우친 수행자였다.⁵²⁾ 뿐만 아니라 그는 밀교경전 번역작업에 참여하였고, 이미 번역된 경전의 서문을 작성해 밀교의 종지를 드러냈으며, 내도량에 들어가 당 왕실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였다. 그리고 혜초는 당에 머무는 동안 그의 인도여행기 『往五天竺國傳』을 저술하였다.

3. 禪宗僧 無相과 靈照

무상에 관한 자료는 20세기 초 돈황에서 발견된 『曆代法寶記』를 비롯하여 神清의 『北山錄』과 그에 대한 慧寶의 주기, 宗密的 『圓覺經大疏抄』, 贊寧의 『宋高僧傳』 그리고 李商隱의 「唐梓州慧義精舍南禪院四證堂碑銘并序」 등이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무상은 본국에서 출가하여 계를 받은 후 성덕왕 27년(728) 당나라에 들어갔다고 한다.

성덕왕대는 신라 전시기 가운데 나당교섭이 가장 활발하였다. 성덕왕 재위 36년 동안 신라는 46회의 견당사를 보냈는데,⁵³⁾ 동왕 27년에는 왕의 종제 金嗣宗을 당에 파견하였다. 이때 김사중은 당에 들어가 방물을 바치고 신라 자제들의 당나라 국학 입학을 청하자, 당에서 그것을 허락하고 그에게 果毅의 관작을 줌과 동시에 머물러 숙위하게 하였다. 무상은 바로 김사중의 견당선을 타고 예비 국학생들과 함께 당에 들어갔던 것이다.⁵⁴⁾

당에 들어간 무상은 현종을 배알하고 장안의 禪定寺에 배속되어 머물렀다. 그후 언제인가 장안을 떠나 스승을 찾아 유력하다가 劍南道 資州 德純寺에 이르러 智誥의 제자 處寂 문하에 들어가 무상이라는 법호를 받고 2년 동안 머문 후 지금의 사천성 灌縣에 있는 天谷山에 거주하였다. 처적은 입적할 즈음에 이르러 王錕을 보내 무상에게 袈裟信衣를 전하였는데, 그때가 대략 732년~734년경이었다. 그렇다면 무상은 선정사에서 2, 3년 남짓 머물다 730년경에 덕순사 처적을 찾아갔다고 하겠다.

52) 「請於興善寺當院兩道場各置特誦僧制」,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 권4; 『大正新修大藏經』 권52, 845쪽 中.

53)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研究』(일조각, 1997), 45~57쪽.

54) 冉雲華, 「東海大師無相傳研究」, 『敦煌學』 4(敦煌學會, 1979), 49쪽.

처적으로부터 信衣를 받은 무상은 계속 천곡산에서 초의절식하며 선정을 닦은 후 시가로 내려와 두타행을 실천하였다. 그때 長史 章仇兼瓊이 선법을 청하였으므로 淨泉寺 곧 정중사에 주석하며 20여년 동안 중생을 교화하였다. 그런데 『송고승전』(권19) 무상전에서는 무상이 시가에서 두타행을 하고 있을 즈음 장구겸경이 찾아와 예경하였는데, 때마침 현종이 난을 피하여 촉에 와 있으면서 무상을 내전으로 맞아들어 모셨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성도 현령이었던 楊翬이 처음에는 무상을 요망하고 미혹스럽다고 의심하였으나, 후에 귀의하여 단월들에게 권하여 정중사, 大慈寺, 菩提寺, 寧國寺 등을 지어 무상에게 거주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송고승전』에 따르면, 무상이 정중사에 주석한 시기는 현종이 安祿山の 난을 피해 성도로 도망 온 756년 7월 이후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장구겸경은 개원 27년(739)에 益州司馬와 長史 그리고 劍南節度使가 되어 740년에 安戎城과 維州를 침입한 토번군을 격퇴하는 등 739년을 전후해 8년간 촉지방을 다스렸으므로⁵⁵⁾ 현종이 촉에 몽진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현종의 존경을 받으며 내전에게까지 초빙된 고승 무상을 일개 성도 현령이 ‘요망하고 미혹스럽다’는 죄목으로 무례하게 시험했다는 설화도 현실감이 없다.

그러므로 무상은 『역대법보기』에서와 같이 장구겸경의 초빙으로 정중사에 주석하게 되었고, 그 시기는 장구겸경이 익주장사 및 검남절도사였던 739년 전후였을 것이다. 그리고 양익이 무상을 요혹하다고 의심해 시험한 때는 무상이 무덤 사이에 기거하며 기행으로 두타행을 행하던 시기 곧 정중사에 들어가기 전인 730년대 후반이 아니었을까 한다.⁵⁶⁾

한편 이때 신라에서 자객을 보내 무상을 죽이려 하였다. 『송고승전』과 『神僧傳』(권7) 무상전에 따르면, 본국에 있던 무상의 아우가 새로 왕위에 올라 무상이 돌아오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여겨 자객을 보내 죽이려 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무상은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기지를 발휘해 죽음을 모면하였다.

정중사에 머물며 교화를 퍼던 무상은 보응 원년(762) 5월 17일 그곳에서 입적

55) 『舊唐書』 권196, 열전 吐蕃; 같은 책, 권9, 현종 개원 27년; 『四川通志』 권6, 名宦.

56) 卍雲華는 앞의 논문(1979, 51~52쪽)에서, 성도 현령 楊翬이 무상을 妖惑하다고 하여 불러 시험한 사건을 개원 7년(719)과 개원 19년(731)에 현종이 반포한 승니들의 불법적인 집회와 기행을 금단하는 조령을 시행한 하나의 사례라 하였다. 이는 경청할만한 견해이다.

하였다.57) 무상이 죽은 후 그의 사리탑을 東海大師塔이라 하고, 자주자사 韓泐이 탑비의 비문을 찬술하였다. 무상은 728년에 입당한 후 35년 동안 당에 머물며 독자적인 선사상과 특이한 두타행으로서 사천 지방에 선종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그의 제자로는 정중 神會를 비롯하여 마조 道一과 보당 無住 그리고 神清, 融禪師, 王頭陀 등이 있었다.58)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티베트에까지 전래되어, 티베트 불교도입의 결정적인 방향제시 및 선도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상이 사천성 일대에서 활동한 선승인 반면 영조는 절강성에서 주로 활동한 승려이다. 경문왕 10년(870)경 신라에서 태어난 영조는 언제인가 남중국으로 건너가 불법을 구하다가 雪峰 義存을 찾아 선법의 대의를 묻고 수도하였으며, 의존 아래에서 도를 깨우쳐 법을 전해 받음으로써 清原 行思의 7세손이 되었다. 당시 그는 언제나 누더기 한 벌을 걸치고 대중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照布衲 곧 누더기 스님이라 불렀다.59)

의존의 법맥을 이은 영조는 처음에 齊雲山에 머물렀으므로 제운화상이라고도 한다.60) 후에 그는 鏡清院에 주석하였는데, 湖州 太守 錢公이 報慈院을 창건하여 그를 모셨으므로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후 전공은 다시 龍華寺를 창건해 영조에게 주지직을 맡겼다. 이때 吳越王은 그를 內道場으로 초빙해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청하였고, 사망에서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문도들이 몰렸다. 그는 용화사에서 선법을 전하다가 947년에 78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61)

IV. 서화를 부추긴 신라사회

1. 骨品制의 桎梏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신라 서학 구법승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백성을 교

57) 『曆代法寶記』 劍南城都府淨泉寺無相禪師; 『大正新修大藏經』 권51, 185쪽 上.

58) 鄭性本, 앞의 논문(1995), 117~139쪽.

59) 『景德傳燈錄』 권18, 杭州龍華寺眞覺大師靈照傳.

60) 『祖堂集』 권11, 齊雲和尚.

61) 『景德傳燈錄』 권18, 杭州龍華寺眞覺大師靈照傳.

화하고 불교를 흥포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끝내 신라에 돌아오지 않고 이국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신라의 정치·사회상황이 구법승들의 서화를 조장한 면도 없지 않았다. 여기서는 행적이 비교적 잘 알려진 원측, 무상, 지장, 무루를 통하여 구법승의 서화와 신라 국내 상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측은 신라 6부의 하나인 牟梁部에서 태어난 6두품 출신이었다. 원측의 신분에 관해서는 필자가 일찍이 자세히 고증한 적 있다. 즉 원측 관련 여러 자료 가운데 최치원의 「翻經證義大德圓測和尚諱日文」(이하 「회일문」으로 약칭함)이 사료적 가치가 가장 높다는 전제 하에서, 원측 가문은 秦·漢 교체기에 북방에서 한반도 동남부로 이주해 모량부에 안착한 두품 신분 곧 6두품 집안이었다는 것이다.⁶²⁾

사실 필자가 ‘원측은 6두품 출신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그를 신라 왕족 출신으로 이해하였다. 이전의 연구자들은 그 만두고라도 필자가 ‘원측 6두품설’을 제기한 이후의 반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 비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측의 신분 문제는 본고의 논지 전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 高榮燮은 1115년에 宋復이 찬술한 「대주서명사고대덕원측법사불사리탑명병서」(이하 「불사리탑명」으로 약칭함)에서 “新羅國王之孫也”이라 하여 원측이 왕족임을 분명히 말하였고, 최치원의 「회일문」에서도 그를 “鯨海之龍子 鷄林之鳳雛”라 하여 왕을 상징하는 용과 봉의 자손이라 하였으므로 원측은 왕족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⁶³⁾ 그리고 『속고승전』(권15) 法常傳에 실린 ‘新羅王子金慈藏’의 행적을 원측의 그것이라 하여 이른바 ‘원측 왕족설’을 보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라에는 원측이 3명 있었는데 서화 구법승 원측 곧 ‘文雅 圓測’은 『삼국유사』(권2) 孝昭王代竹旨郎條에 나오는 모량부 출신의 원측과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한다.⁶⁴⁾

주지하듯이 송복의 「불사리탑명」은 최치원의 「회일문」보다 약 200년 후에 중국

62) 權惠永, 「新羅 圓測의 入唐과 歸國問題」, 『羅唐佛敎의 再照明』(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93), 176~182쪽.

63) 姜明희, 「圓測法師의 入唐行蹟(1)」, 『佛敎研究』, 23(2005), 328쪽에서도 龍과 鳳은 모두 임금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측의 선조가 신라 왕손으로 편입된 인물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64) 高榮燮, 「西明 文雅(圓測) 傳記類의 재검토」, 『佛敎史研究』, 2(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1998), 36~46쪽; 高榮燮, 『文雅大師』(佛敎春秋社, 1999), 49~64쪽.

인에 의하여 씌어졌고, 찬술 경위 또한 「휘일문」에 비하여 신중치 못하였으므로 사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고영섭은 「휘일문」에서 ‘馮鄉土族’이라는 말을 무시하고 「불사리탑명」에서 왕손이라 한 것에 전적으로 의존해 원측의 신분을 왕족으로 추론하였다. 더욱이 최치원이 원측을 ‘龍子’와 ‘鳳雛’라 한 표현은 그의 출신이랄까 신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원측의 인품이나 학덕이 뛰어났음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서술에 불과하다. 만약 최치원의 그러한 표현이 출신 씨족을 나타낸다면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銘」에서 무염을 ‘龍子’라 했으므로 낭혜화상 무염 역시 진골 왕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염은 진골에서 강등된 得難 곧 6두품이었다.⁶⁵⁾

정작 최치원이 원측의 신분을 말한 구절은 ‘馮鄉土族 燕國王孫’인데, 고영섭은 이 부분에 대하여 최치원의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해석을 회피하였다. 게다가 『속고승전』(권15) 법상전에 나오는 자장 관련 기사를 원측에 관한 기록의 착오라는 주장과 원측이 3명 있었다는 가설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반론이 필요치 않다.

남무희 역시 원측을 신라 왕족 곧 모량부 소속의 박씨 왕족이라 하였다. 그는 최치원의 「휘일문」에서 ‘夙種善牙 行攀勝果’라 한 기사에 주목하여, “馮鄉土族 燕國王孫인 원측의 선조는 ‘일찍이 착한 싹을 심어 훌륭한 과보에 올라갔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라 왕족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송복이 「불사리탑명」에서 그를 신라 왕손이라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더하여 중고기에 상당수의 왕비들이 모량부 박씨 출신이었으므로 원측 역시 그들과 일족이었을 터인데, 모량부 박씨는 北燕出自意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⁶⁶⁾

여기서 남무희가 원측의 가문을 왕족으로 보는 결정적인 근거는 「휘일문」의 ‘行攀勝果’라는 표현이다. 즉 ‘훌륭한 과보에 올라갔다’라는 말을 원측의 가문이 왕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勝果는 불교에서 수행을 통하여 얻은 깨달음의 경지를 뜻하므로 行攀勝果는 곧 원측이 불교에 투신해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말에 근거해 원측 가문을 왕족으로 이해한 것

65) “父範淸 族降眞骨一等 曰得難[國有五品 曰聖而曰眞骨曰得難 言貴姓之得難],”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100쪽.

66) 南武熙, 앞의 논문(2005), 20~42쪽.

은 잘못이다. 더욱이 「불사리탑명」의 기사는 「휘일문」의 그것과 계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작성된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측이 모량부 사람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박씨 왕비족일 수 없다. 이런 몇가지 점에서 원측을 모량리 박씨 왕족이라 한 남무희의 견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최치원의 「휘일문」에서 원측을 馮鄉 곧 신라의 사족이고 燕國의 왕손이라 하였고 『삼국유사』에서 모량부 사람이라 하였으므로, 그를 경주 모량부 출신의 6두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신라는 전시기 동안 왕족 중심으로 짜여진 골품체제로써 사회를 운영하였으므로 원측과 같은 두품 신분층은 사회 진출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진평왕 45년에서 48년 사이에 원측의 출신 部인 모량부 사람에 대한 왕실의 차별정책이 시행되어 원측의 사회적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러한 신분적 한계와 모량부인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원측은 마침내 진평왕 49년(627)에 당으로의 서학 구법을 결행하게 되었다.⁶⁷⁾

신라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안고 입당한 원측은 당에서 학문적으로 대성하였다. 그러나 선뜻 귀국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686년에 신문왕이 견당사를 통하여 원측의 방환을 요청했으나 측천무후가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는데,⁶⁸⁾ 무엇보다도 일찍이 신라의 폐쇄적인 골품제의 병폐를 직접 경험한 원측이 본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당은 세계제국을 표방하며 이민족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어놓았으므로 신분적 제약이 없었고, 또 개인적으로 원측은 측천무후로부터 존숭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래서 신문왕 6년에 견당사를 통해 귀국을 중용받았으나 끝내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당에 남았다.

신라의 서학 구법승 가운데 원측처럼 중국에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으나 신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귀국을 망설였던 사람도 있었다. 圓光이 바로 그 사람이다. 잘 알려진 대로 원광은 6두품 출신의 승려이다. 그는 신분제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길을 찾아 출가했고 또 중국 유학을 단행했거니와,⁶⁹⁾ 유학 초기 원광은 중국에서 일생을 마치려 마음먹었다.⁷⁰⁾ 그러나 원광은 서학의 길을 떠난 지 11년 뒤

67) 權惠永, 앞의 논문(1993), 182~190쪽.

68) “垂拱中[則天] 吾君慕法 累表請還 聖帝垂情 優詔顯拒.” 『翻經證義大德圓測和尚諱日文;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下)』(寶蓮閣, 1972), 167~168쪽.

69) 李基白, 「圓光과 그의 思想」, 『新羅思想史研究』(일조각, 1986), 96~105쪽.

70) 『續高僧傳』 권13, 圓光傳.

인 진평왕 22년(600)에 결국 신라로 돌아왔다. 원광이 초심을 버리고 귀국한 것은 수나라 開皇 20년(600)에 실시된 三階敎 탄압과 같은 외부적 영향도 있었거니와,⁷¹⁾ 그가 한때나마 귀국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신라 골품체제 속에서의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직하다.

어쨌든 신라의 폐쇄적 신분제인 골품제는 서학 구법승들의 귀국을 망설이게 만들었고, 원측같은 이는 극단적으로 귀국을 거부하고 당에서 생을 마쳤다. 이런 점에서 신라의 골품제는 신분적 한계를 지닌 두품 출신 서학 구법승들의 귀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2. 政爭의 恐怖

원측이 왕족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귀국하지 않았다면, 무상·지장·무루는 진골 왕족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西化의 길을 택하였다. 신라왕의 셋째 아들 혹은 신라 왕족 출신인 무상은⁷²⁾ 신문왕의 즉위를 전후한 680년 혹은 684년경에 태어났다.⁷³⁾ 신문왕 政明은 문무왕의 장자로 665년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그 후 언제인가 金欽突의 딸을 비로 맞아들였으며, 681년 7월에 문무왕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그해 8월에 일어난 김흠돌의 반란 사건으로 왕비는 출궁당하고, 이어서 동왕 3년(683)에 김순원의 딸을 새로 왕비로 맞이하여 4년 후인 687년에 태자 理洪을 낳았다. 그가 신문왕을 이어 즉위한 효소왕이다.

이러한 연대기 속에서 무상이 신라왕의 셋째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신문왕과 김흠돌의 딸 사이에 태어났을 가정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김흠돌의 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한다.⁷⁴⁾ 물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신문왕은

71) 閔泳珪, 『四川講壇』(又半, 1994), 53쪽.

72) 『宋高僧傳』(권19) 無相傳에서는 무상을 신라왕의 셋째 아들이라 하였고, 『北山錄』(권6) 慧寶의 세주에서 신라왕의 셋째 태자라 하였다. 그리고 『曆代法寶記』 劔南城都府淨泉寺無相禪師條에서는 단순히 신라 왕족이라 하였다.

73) 『曆代法寶記』 劔南城都府淨泉寺無相禪師條에 의하면 무상은 寶應 원년(762)에 79세의 나이로 죽었다 하고, 『송고승전』(권19) 무상전에서는 至德 원년(756)에 77세로 입적했다고 한다. 이를 역산하면 무상은 680년 혹은 684년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74) 『三國史記』 권8, 신문왕 즉위년.

즉위 전에 이미 자식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⁷⁵⁾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의 한 명, 엄밀히 말하면 셋째 아들이 있어 그가 무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무상이 신라왕의 셋째 아들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무상이 신라왕의 아들은 아니었더라도 그의 가문은 당시 유력한 진골귀족이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역대법보기』에서 그의 속성은 김씨로 신라 왕족이라 하였고, 『속고승전』과 『신승전』 등에서는 그를 신라왕의 아들로 착각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무상의 출가와 입당 그리고 서화는 바로 그러한 가문적 배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무상은 성덕왕 27년(728)에 당나라에 들어갔다. 그 때는 성덕왕의 후비 昭德王妃에게서 태어난 承慶이 태자로 책봉된 지 4년 후이다. 성덕왕대는 동왕 1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집권세력의 변화가 있었다. 즉 성덕왕의 先妃 成貞王后的 출궁, 동왕 16년 성정왕후 소생인 태자 重慶의 사망, 동왕 19년 김순원 딸의 왕비 영입, 동왕 23년의 소덕왕비 소생인 승경의 태자책봉 등 그것이다. 이러한 정치변혁 과정에서 신문왕대 이후 성덕왕 초기까지 왕권 전제화를 반대하던 전통적 귀족세력은 김순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왕당파 귀족세력에 의하여 교체되었다.⁷⁶⁾ 성덕왕대 일어난 일련의 정치세력 변화에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바로 동왕 23년 소덕왕비 소생인 승경의 태자책봉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미 40대 중반에 이른 무상이 입당한 것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성덕왕 15년 이후에 일어난 신라 왕실 내 일련의 정치세력 변동과 유력한 진골귀족이었던 무상의 가문을 연관시켜 보면, 무상의 출국은 자기 가문이 정권으로부터 소외 혹은 소외에 따른 가문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쫓기다시피 입당한 무상에게 본국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송고승전』(권 19) 무상전에 의하면, 무상이 成都에 이르렀을 때 신라에서 그의 동생이 새로 왕이 되었는데 무상이 돌아오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여 자객을 보내 그를 죽이려했다고 한다. 무상이 자객의 위협을 받은 때는 전술했듯이, 성도 淨衆寺

75) 辛鍾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담구당, 1987), 91~131쪽; 呂聖九, 앞의 논문(1997), 142~145쪽.

76) 金壽泰, 『新羅中代 政治史研究』(일조각, 1996), 69~83쪽.

에 머무르던 초기 곧 730년대 말경이다. 이때 신라에서는 성덕왕이 죽고 효성왕이 즉위한 직후이다. 효성왕은 성덕왕의 아들이므로 무상과 친형제간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무상의 從弟 곧 집안 아우뻘은 될 수 있다. 『송고승전』에서 당시 신라왕을 무상의 아우라 한 것을 종제로 이해하면 틀린 말이 아니거니와, 본국에서 자객을 보내 무상을 죽이려했다는 것 역시 사실일 것이다. 이처럼 무상은 자신의 가문이 정쟁에서 밀려 위기가 닥침에 따라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당의 길을 택하였다. 그럼에도 본국에서는 당나라에까지 자객을 보내 무상을 죽이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은 고국에 돌아갈 수 없었을 뿐더러 또 스스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을 것이다.

지장 역시 신라 왕족이었다. 지장의 신분에 관해서는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씌어진 「구화산화성사기」와 『송고승전』에는 ‘新羅王子 金氏近屬’ 혹은 ‘新羅國王支屬’이라 하여 그를 왕족의 일원으로 파악했으나, 청대 이후의 문헌에는 그를 신라 왕자라 하였다. 그래서 그를 성덕왕과 성정왕후 사이에 출생하여 동왕 13년(714)에 입당한 金守忠과 동일인으로 보기도 하고, 경덕왕의 아들이라고도 하며 신문왕과 김흠돌의 딸 사이에 태어난 왕자의 아들이라 주장하기도 한다.⁷⁷⁾ 그러나 어느 것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그가 진골 출신의 유력한 귀족 신분이었음은 분명하다.

유력한 진골귀족인 그가 이국에서 고행과 교화에 전념하며 고국에 돌아가지 않은 데는 독실한 구도심 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지장은 개원 말경 곧 740년경 이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입당하였다. 당시 신라는 효성왕이 재위 하던 시기로, 외척세력들 사이에 권력쟁탈을 둘러싸고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유력한 귀족가문이었던 지장의 집안 역시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정쟁에 관련되었음직 하다.

지장이 40세가 넘은 나이에 입당하여 구화산 심산유곡에서 죽을 때까지 외로운 구도생활을 지속하였다. 이렇게 혼자 수십년 동안 두타행을 실천하고 있었음은 그가 단순히 중국의 선진 불교를 배우기 위하여 입당하지 않았음을 암시해준다.⁷⁸⁾ 그렇다면 그가 당에 들어간 것은 본국에서 목도한 정쟁의 비정함 때문이 아니었을

77) ‘지장 왕자살’에 대한 다양한 주장은 呂聖九, 앞의 논문(1997), 142-145쪽, 여성구, 앞의 논문(1999), 457-459쪽 참조.

78) 여성구, 앞의 논문(1999), 462쪽.

까 한다. 입당 동기가 그러했다면 지장은 선뜻 고국에 돌아갈 마음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후대의 자료지만 『구화산유기』와 『청양현지』에서, 본국에서 사람을 보내 지장의 귀국을 설득했으나 지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더하여 그들마저 지장의 교화에 감복하여 돌아가지 않고 구화산에서 지장의 전법을 도왔다. 이처럼 지장은 끝내 고국에 돌아가기를 거부했는데, 그것은 신라에서 벌어지던 정쟁의 공포 때문이었음직 하다.

무루도 신라 왕족 출신이었다. 『송고승전』(권21)에 실린 그의 전기에 의하면, 무루는 성이 김씨이고 신라왕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본토에 적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루를 태자로 세우려 하였으므로 오나라 季札이 왕위를 사양하고 延陵에 물러나 있었다는 고사를 흠모하여 출가해 도망치듯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갔다고 한다. 『송고승전』에서 무루의 출가와 입당 배경을 ‘延陵之讓’이라는 말로 묘사한 점으로 보아, 당시 신라에 왕위를 둘러싼 무루와 그 형제간의 분규 혹은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⁹⁾

무루가 어느 왕의 아들이었고 누가 그의 형으로서 왕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무루의 출가와 입당에 얽힌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실린 寶川과 孝明 형제의 설화를 연상시킨다. 즉 淨神大王의 두 아들 보천과 효명이⁸⁰⁾ 갑자기 方外에 뜻을 두고 오대산에 들어가 숨었는데, 후에 정신왕의 아우가 왕과 왕위를 다투자 국인들이 이를 폐하고 두 왕자를 맞이하고자 했으나 형인 보천이 극구 사양하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효명을 받들어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보천은 더욱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도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보천과 효명에 관한 설화가 얼마나 역사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무루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⁸¹⁾ 관한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이 설화는 왕위를

79) 여성구, 앞의 논문(1998), 163~165쪽.

80) 一然은 『三國遺事』에서 보천과 효명을 신정대왕의 두 아들로 이해하였으나, 閔漬는 「五臺山聖迹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에서 정신대왕을 보천과 동일인으로 인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辛鍾遠, 앞의 논문(1987), 96~101쪽 참조.

81) 辛鍾遠은 앞의 논문(1987), 110~128쪽에서 『삼국유사』(권3)의 보천과 효명 설화를 성덕왕의 즉위 과정과 결부시켜 이해하였다. 반면에 李基白은 「浮石寺와 太白山」(『金元龍教授停年紀念論叢(2)』, 일지사, 1987), 581쪽에서 그것을 단순한 설화로 보았다. 한편 여성구는 앞의 논문(1998), 163~165쪽에서, 무루가 성덕왕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둘러싸고 일어난 왕실내의 갈등이 왕자들의 출가 혹은 隱逸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무루의 출가와 입당 역시 그러한 유형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무루가 본국에서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모종의 갈등 때문에 승려가 되고 또 당에 들어갔다면, 그의 귀국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V. 맺음말

최근 한 언론에서 리크루팅 업체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의 21.8%가 해외유학을 준비 중이라 보도하였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 7년 사이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외유학이 무려 13배 증가했다고 한다.⁸²⁾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가히 해외유학 붐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해외유학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으나, 문제는 해외 유학생 특히 미국 등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 인력들의 현지 잔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귀국을 포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귀국 후 장래의 불확실성, 연구여건의 열악함, 생활과 교육환경의 낙후성, 정치·사회적 불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신라의 사정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라는 법흥왕대 이후 많은 승려와 학생들이 중국에 유학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의 선진 불교를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한 승려를 西學 求法僧이라 칭하거니와, 그들은 대부분 신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부는 돌아오지 않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최치원은 이들을 ‘西化’ 구법승이라 하였다.

서화 구법승은 지금까지 십수 명이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크게 중국을 거쳐 인도까지 가서 불법을 구한 天竺 巡禮僧과 중국 내에서만 공부한 在唐 서화승으로 나눌 수 있다. 천축 순례승으로는 아리아발마, 현각, 혜륜, 오진, 현대, 혜초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라승 2명이 있고, 재당 구법승으로는 원측, 신방, 지장, 무루, 무상, 혜각, 도육, 영조 등이 있다.

82) 《연합뉴스》, 2006년 5월 15일 및 10월 12일.

이들 중 원측과 신방은 당의 역경사업에 證義와 筆受로서 참여하여 많은 불경을 번역하였고, 唯識에 관한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그리고 지장과 밀교승 무루, 혜초 등은 백성을 교화하고 당 왕실에 봉사하였다. 특히 혜초는 인도를 순례하고 돌아와 50년 이상 당에 머물며 그의 여행기 『往五天竺國傳』의 저술은 물론 金剛 禪와 不空 아래에서 밀교의 정수를 공부하고 경전을 번역하였다. 한편 무상과 영조는 각각 사천과 절강지방에서 주로 활동한 선종승이다. 이 가운데 무상은 독자적인 선사상과 두타행으로 사천지방에서 선종의 기반을 닦았고, 티베트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경, 저술, 강론, 교화, 봉사를 통해 그들은 중국 불교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한 데는 신라 불교계의 특수성과 생활환경 및 修行 여건의 不備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시 신라의 사회체제와 정치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직하다. 6두품 출신인 원측은 골품제의 桎梏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고, 무상, 무루, 지장은 진골 귀족들 사이에 벌어지던 政爭의 공포 때문에 귀국을 포기하였다. 결국 폐쇄적 신분제도인 골품제와 왕실의 치열한 정쟁은 서학 구법승들의 귀국을 막는 장애물이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大正新修大藏經』; 『寶刻叢編』; 『續高僧傳』; 『宋高僧傳』; 『全唐文』; 『開元釋教錄』; 『貞元新定釋教目錄』;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上表制集』; 『舊唐書』; 『新唐書』; 『四川通志』; 『景德傳燈錄』; 『祖堂集』; 『北山錄』; 『曆代法寶記』.

高柄翊, 『東아시아文化史論考』.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7.

高榮燮, 『文雅大師』. 서울: 佛教春秋社, 1999.

權憲永, 『古代韓中外交史』. 서울: 일조각, 1997.

金相鉉, 『新羅의 思想과 文化』. 서울: 일지사, 1999.

金壽泰, 『新羅中代 政治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6.

- 閔泳珪, 『四川講壇』, 서울: 又半, 1994.
-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下)』, 서울: 寶蓮閣, 1972.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 서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黃有福·陳景富, 『中朝佛教文化交流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 高榮燮, 「西明 文雅(圓測) 傳記類의 재검토」, 『佛敎史研究』 2,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1998, 21~59쪽.
- 權惠永, 「당 武宗의 廢佛과 신라 求法僧의 動向」, 『정신문화연구』 제17권 제1호, 1994, 87~107쪽.
- 權惠永, 「新羅 圓測의 入唐과 歸國問題」, 『羅唐佛敎의 再照明』,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93, 175~195쪽.
- 金相鉉, 「7世紀의 新羅西域求法高僧傳」, 『東國史學』 35·36 합집, 동국사학회, 2001, 17~29쪽.
- 김상현, 「7·8세기 海東求法僧들의 중국에서의 活動과 意義」, 『佛敎研究』 23, 한국불교연구원, 2005, 51~76쪽.
- 金煥泰, 「唐 九華山 新羅 地藏禪師 고찰」, 『韓國佛敎學』 23, 한국불교학회, 1997, 33~60쪽.
- 金煥泰, 「新羅僧 慧超에 대하여」, 『伽山學報』 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11~31쪽.
- 김병곤, 「新羅 下代 求法僧들의 行蹟과 實狀」, 『佛敎研究』 24, 한국불교연구원, 2006, 95~145쪽.
- 南武熙, 「圓測의 生涯와 唯識思想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남무희, 「원측의 저술활동과 역경참여」, 『역사와 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223~252쪽.
- 辛鍾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987, 91~131쪽.
- 呂聖九, 「新羅 中代의 入唐求法僧」,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呂聖九, 「入唐求法僧 無漏의 生涯와 思想」, 『先史와 古代』 10, 한국고대학회, 1998, 161~178쪽.
- 呂聖九, 「入唐求法僧 地藏의 行迹과 思想」, 『白山學報』 52, 백산학회, 1999, 455~483쪽.
- 冉雲華, 「東海大師無相傳研究」, 『敦煌學』 4, 敦煌學會, 1979, 47~60쪽.
- 李基白, 「浮石寺와 太白山」, 『金元龍教授停年紀念論叢(2)』, 서울: 일지사, 1987, 574~581쪽.
- 李萬, 「新羅 神昉의 唯識思想」, 『韓國佛敎學』 35, 한국불교학회, 2003, 29~55쪽.
- 鄭性本, 「淨衆無相禪師研究」, 『新羅禪宗의 研究』, 서울: 민족사, 1995, 79~139쪽.
- 정수일, 「혜초의 서역기행과 왕오천축국전」, 『한국문학연구』 2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26~50쪽.
- 천징푸, 「한국 승려의 長安에서의 활동」, 『佛敎研究』 23, 한국불교연구원, 2005, 93~155쪽.

국 문 요 약

신라시대에 많은 승려들이 중국과 인도에 유학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신라로 돌아왔으나, 일부는 돌아오지 않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최치원은 이들 귀국하지 않은 승려를 '西化' 求法僧이라 하였다. 신라의 서화 구법승은 지금까지 십수 명이 알려져 있다. 유학한 지역에 따라 그들을 분류하면, 인도에 가서 불법을 구한 天竺 巡禮僧과 중국에서 공부한 在唐 구법승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활동한 승려들은 중국 불교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원측과 혜초는 당나라 역경사업에 참여해 많은 불경을 번역하고 다양한 저술을 남겼으며, 지장과 무루는 강론과 교화를 통해 당 왕실과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리고 무상은 새로운 禪思想을 창시하여 티베트 불교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당시 신라의 폐쇄적 신분제도인 골품제와 왕실의 치열한 정쟁이 구법승들의 귀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 투고일 : 2007. 4. 10.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서화 구법승(Seowha monks pursuing Buddhist lessons), 최치원(Choi, Chi-won), 원측(Weoncheuk), 혜초(Heycho), 골품체제(Golpum system).